

빌헬름 폰 훔볼트의 언어사상

안정오
(고려대학교)

훔볼트에 의하면 언어는 언어원형을 가지고 있고 이 언어 원형은 선형적인 것이다. 훔볼트는 이러한 언어를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 대상의 표시와 이해의 전달 그리고 내적인 정신의 활동이 그것이다.¹⁾ 그래서 언어는 의사소통수단일 뿐 아니라 정신이 영원히 계속해 온 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²⁾ 이런 맥락에서 사고는 언어 없이는 불가능하고 언어를 통해서만 사고는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형성의 과정이 독백적이지 않고 항상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는 이 언어를 음성, 낱말, 문장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담화(Rede)로 본다. 그래서 낱말에서 텍스트가 생긴 것이 아니고 텍스트 전체에서 낱말이 생긴 것으로 본다.³⁾ 언어를 나누어서 보지 않고 하나의 말하기 전체로 언어를 본다.⁴⁾ 그에 의한 언어는 매번 말하기 이고 에르곤이 아니고 에네르게이아 이다.⁵⁾

이러한 언어는 항상 형식과 재료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각 민족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진다. 이 형식과 재료가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르게 만들어 질 때 세계관이 생겨난다. 그 세계관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의 개별성이 생긴다. 그러나 언어의 개별성 뒤에는 보편적인 언어원형이 존

【Keywords】 worldview, humboldt, energeia, language-generation

1) Humboldt VII:44.

2) Humboldt VII:45 이하.

3) Humboldt VII:72.

4) Humboldt III:418.

5) Humboldt VII:46, 418.

재한다. 언어는 보편적이며 개별적이고 개별성 안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개별성에 따른 상이성은 “음성의 차이가 아니고 세계관의 차이”다.⁶⁾

이런 맥락에서 언어a와 언어b의 번역은 거의 불가능하고 번역이 필요해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항상 낮설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1. 언어의 생성 : 언어원형이 언어를 만들어 냈다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는 “언어란 인간에 의해서 발명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중세기에 대변되는 언어가 신의 하사품이라는 사상과는 다른 사상이었다. 헤르더는 인간이 언어를 발명하는 과정을 이성의 역할로 보는데 이는 계몽주의적인 사고인 동시에 동물과 인간의 구별법이었다. 그러나 훔볼트는 이와는 달리 언어는 이성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이성에 이미 존재한다”라고 쓰고 주장한다.:

“확신하건대 언어는 직접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이성의 작품으로서 명확히 설명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언어의 발명을 위해 수 천년 혹은 수 만년이 필요하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생각이다. 언어의 모형이 인간 이성에서 미리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언어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이 단 하나의 단어를 단순한 감성적 자극으로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발음된 소리로서 실제상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는 이미 완전해야 하고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언어에는 단독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언어의 요소들의 각각은 전체의 부분으로써만 나타난다. 언어들의 점차적인 형성의 가설이 그렇게 자연적이라면 그 발명은 단번에만 일어날 수 있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인간이다; 그러나 언어를 발명하기 위해 그는 이미 인간이어야 한다.”⁷⁾

인용부에 나타난 생각이 훔볼트의 언어생성관이다. 그는 언어가 점진적으

6) 훔볼트는 외형적 차이에 따라서 유사한 것끼리 묶어 언어분류작업도 행하였다.

7) Humboldt III:10-11.

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단번에 발생되었다는 가설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생각을 설정한다.

- 1) 언어의 원형이 인간의 이성에 있다.
- 2) 언어적 능력이 인간의 이성에 있기 때문에 언어행위는 통합을 거쳐서 실행된다.

언어원형이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산이며 능력인데 훔볼트의 선형적 언어생성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언어원형이 이미 인간 이성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어는 발명될 수 없다”⁸⁾라고 말함으로 훔볼트는 언어생성에 대한 선형성을 주장한다. 이 언어생성의 선형성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는 언어의 유기체적인 연계관계이다. 유기체적인 특성이란 개체는 다른 것을 통해서만 생성되고 전체는 전체를 관통하는 힘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것이다.⁹⁾ 이 언어가 보이지 않게 연결되는 것은 언어원형의 유기체적인 특성 때문이다. 언어가 최초로 생성될 때 이 원형은 자극을 받고 마치 씨앗처럼 점차 성장을 하여 완전한 언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훔볼트는 생각하기를 이 원형이 선형적으로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언어적인 지식이라면 그것은 모든 언어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형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언어들의 모든 상이함을 넘어서 각 언어들이 나타내는 공통성이 있을 것이므로 언어생성 측면에서 볼 때 훔볼트에게는 언어의 개별성(Individualität)과 상이성(Verschiedenheit)이 중요하며, 언어의 보편성(Universalität)이 더욱 중요했다. 이 원형을 우리는 개별언어들에서 찾으려 안 된다. 어떤 언어에 이 원형 없으면 언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원형은 모든 민족에게 사고와 표현의 형태로, 인간에게 예외 없이 존재해야 한다. 현재는 상이한 인간의 언어들이 상이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언어에 이 모형의 변이형들만이 존

8) Humboldt III:10.

9) Humboldt III:3.

재한다. 훔볼트에 의하면 각 언어는 독자적인 “구성원형”(Constructionstypus)을 갖기 때문에 언어의 상이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¹⁰⁾ 그러나 그 일반적인 원형은 이 “구성원형”과는 다르게 각 언어생성의 주어진 기본원리이다. 원시원형을 근거로 구성원형이 생기고, 그 구성원형은 언어보편성을 언어의 독자성으로 전이시킨다.¹¹⁾

인간의 인체에 언어가 완성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구성의 원리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원형이라는 단어와 결부된 이런 선형적인 생각을 훔볼트는 다음 같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언어는 전체에서 간과되는 어디에 놓여 있는 자료로 이해될 수 없고, 또 점차적으로 전달되는 자료로 이해될 수도 없으며, 영원히 생성되는 자료로 이해되어야 한다. 거기서는 생성의 법칙들이 규정되지만 생성의 규모와 방식은 전반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¹²⁾

이 인용에 의하면 언어는 이미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일반적인 언어능력뿐 아니라 언어생성법칙의 구체적인 사전조건을 소유한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언어는 임의대로 여러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 일반적 원시언어원형을 찾는 것과 그 과정의 연구를 훔볼트는 비교언어학의 과제로 설정한다. 그래서 그의 비교언어학은 단순한 음의 비교가 아니라 민족, 민족의 사유형태, 역사, 인류전체의 비교로 진행이 되고 있다.

훔볼트는 언어를 철학적-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성의 지적 본능”

10) Humboldt III:312 참조.

11) 훔볼트의 이 언어원형은 언어의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인 “언어유형”(Sprachtypen)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언어분류에서 “Typus”(원형)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flektierende, agglutierende, einverleibende Sprachform”와 같이 “-form”(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언어분류에서는 형태에 따른 분류법으로 세계의 언어들을 분류하려 했던 반면에 언어원형은 언어생성을 위해 모든 언어에 기본이 되는 조건에 관심을 갖는다. Humboldt III:653 참조.

12) Humboldt III:431.

(intellectuelle [Instinkt] der Vernunft)¹³⁾ 이라 칭했다. 이 지적 본능은 헤르더의 동물적 본능과 비교된다. 헤르더는 그의 언어생성론에서 언어를 동물소리와 동일한 기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동물적인 본능의 일종인 “인간적인 성찰”(Besonnenheit)에서 언어가 생성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헤르더에 의하면 6감을 가지는 동물과 비교하여 볼 때 부족한 결합의 존재로서 인간은 이 성찰을 소유하는데 이것이 언어를 창조한다.¹⁴⁾ 그러나 헤르더가 인간의 성찰이 왜 생기었는가 등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훔볼트도 언어의 일반적인 모형이 왜 생기었는가를 질문하지 않았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만족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존하는 언어들 중 어떤 언어도 원형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 원형은 비교를 통해서 추상적인 방식으로만 언어진다. 이 원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상이한 여러 언어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언어의 유사성이 아마 언어원형이 될 것이다. 훔볼트는 이를 언어의 유기체라 했다. 그에 의하면 모든 언어의 유기체적 원리는 언어 이전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언어의 유기체적 구성은 다음 같이 이해 된다.

“언어는 필연적으로 인간 자체에서부터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언어의 유기체는 어떤 죽은 모양으로 영혼의 어둠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칙으로서 사고력의 기능들을 제한한다. 이로써 최초의 어떤 단어는 이미 전체언어를 암시하고 전제 한다”¹⁵⁾

언어의 유기체는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사고를 사전에 제어한다. 이 언어의 잠재성이 최초의 단어를 생성케 한다. 언어가 이런 유기체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언어는 한번에 창조되어서 모형으로서 존재했어야만 한다라는 가설의 출발점이다. 이는 인간의 정신이 유기체적으로, 즉 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유기체라는 생각은 언어를 원형개

13) Humboldt III:11.

14) Herder 1966(1772):28 이하 참조

15) Humboldt III:11 그리고 480도 참조

념으로 파악해야 하는 훔볼트의 중심 생각이다.

언어에서 2인칭 대명사와 3인칭 대명사의 존재가 대표적인 유기체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논리적인 이유에서 볼 때는 필요가 없는데 언어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 요소인 2인칭과 3인칭대명사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¹⁶⁾ 언어 안에서는 나와 타인의 구별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타인 중 대화상대자와 대화상대가 아닌 자들이 구별되었어야만 한다. “나”(Du)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할 때 대화 상대자로서만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인칭대명사가 모든 언어를 통해 실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훔볼트는 이인칭과 삼인칭의 구별을 모든 언어의 원시원형(Urtypus)으로 나타낸다.¹⁷⁾ 이 인칭대명사는 언어의 역사적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언어의 본질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각 언어 유기체는 이 중심요소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야 한다. 훔볼트는 유기체라는 개념으로 언어는 언제나 전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1.1. 유추

그러나 이미 씨앗처럼 주어진 유기체가 어떻게 응집 유지되고, 어떻게 그것이 언어적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된다. 이 문제는 언어생성물음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유기체를 응집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이미 언어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기본원리에 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훔볼트는 이 유기체라는 생각으로 한 언어 내에서 모든 언어요소들의 상호 제약성과 내부 연결성을 이해한다. 언어의 내적 연결성은 단순히 문법적인 구성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형성이나 문장 형성 그리고 텍스트 형성의 연계 관계까지도 포함한다.

언어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이런 언어의 보편성은 유기체적인 특징으로 나

16) Humboldt III:202 참조

17) Humboldt III:483 참조

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훔볼트는 언어의 연계성에 대해 자주 논의하는데 이것이 유추의 원리이다. 이 유추원리가 유기체를 하나의 전체로 만든다. 1812년에 쓰여진 그의 “바스크 언어에 관한 논문”에서 “어떤 언어의 모든 것은 유추에서 기인한다는 것과 그것의 구성은 그의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어떤 유기적인 구성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원리로 생각할 수 있다”¹⁸⁾라고 쓴 바가 있다. 유추와 유기적 구성을 쉽게 말하자면 유기체란 원시모형을 토대로 하여 유추적으로 구성 발전된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훔볼트는 “카비어 서문”에서 서술하고 있다. “단어들은 언제나 개념에 대응되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들을 유사한 음으로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¹⁹⁾ 그래서 하나의 유추 가능한 조직망이 생긴다. 이 조직망에서 각 부분은 다른 것과 연계관계에 있고 모든 것은 전체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연계관계에 있다.²⁰⁾ 이런 연계성이 각 부분들의 가치를 비로소 확정하고 상호경계를 설정한다. 인간은 유추를 통해 응집되는 유기체로 언어를 구성하는데 이는 선형적 감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유추원리의 작용은 언어의 최초 발생에서는 물론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서도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언어에서 유추의 존재는 경험적 언어 연구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이런 사실들은 훔볼트의 가설에 의해 언어가 생성되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훔볼트의 견해에 의하면 기본음에서 추가와 변형을 통해 새로운 낱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유추이다.²¹⁾ 그러나 최초의 기본적인 재료는 어떤 것이었나에 대한 설명은 없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재료를 현재로서는 유추하지 못하는데, 그 기본적인 재료는 유추를 통해서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고, 원래 유추적으로 구성된 언어요소는 역사적으로 변해 버려서 중간가지가 없고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유추를 통해서만 이 언어를 발전시켰음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부상황을 언제나 정리하고 분류

18) Humboldt V:121.

19) Humboldt III:449.

20) Humboldt III:446 참조.

21) Humboldt III:482 참조.

하여 파악하는 특징을 가지며 이를 파악하는 것은 감성이고, 감성의 결과를 처리하는 것은 언어이고 언어는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유추본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구조를 유추의 원리에 의해 발전시키면서 객체 세계에서 추정된 연계관계의 원리를 따른다. 이 언어에 나타난 유추적 실현성의 가설이 바로 훔볼트의 *세계관* 사상의 기본원리이다. 언어의 세계관은 언어의 구조적 구성에서 나타나는데 현실에 대한 생각이 그 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미 존재하는 언어적 유추가 현실에 실제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각 개인이 가정하게 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존재할 수 있고, 각 개인은 이 언어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동일한 언어공동체 구성원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²²⁾

이 유추는 단지 어휘적 현상에서만 관찰되지 않고 언어의 문법적 구성에서도 유사한 유추적인 범주화가 관찰된다. 훔볼트는 어휘분야에서 이 유추에 대한 예로 정해진 인상을 일으키는 것들은 “stehen, stätig, starr”이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은 “wehen, Wind, Wolke, wirren”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²³⁾ 어떤 언어의 문법적인 구성은 사고의 유기체에 관한 그 언어의 견해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아라비아말에서 집합명사를 나타낼 때 장모음을 삽입하는데 이는 소리의 길이로 사물의 집합을 나타내려는 유추적 원리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 과거의 것, 복수 등은 이 장모음으로 나타내진다.²⁴⁾ 이처럼 유추적인 사고가 문법이 된다. 훔볼트의 생각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언어의 잠재적인 모형은 언어의 구성을 어떤 유추적인 유기체로서 규정한다. 그 유기체는 자연스런 방식으로 생기지만 그것의 특징은 개별적인 언어 내에서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훔볼트는 언어 생성을 위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 왜 인간이 언어를 만들어 내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미 선행적으로 언어모형이 있기 때문에 언어생성원인이 설명될 필요가 없

22) Humboldt III:433-434 참조

23) Humboldt III:425 이하 참조

24) Humboldt III:455 참조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훔볼트는 여기에 대해 “카비어 서론”에서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다. 즉 “말들은 필요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로이 가슴에서 분출된다”²⁵⁾라고 했다. 이는 언어의 자발적인 생성을 의미하는데 의사소통의 필요에서 언어가 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훔볼트는 언어가 필요에서 생성되었다는 생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동조하지도 않고 있다.²⁶⁾ 이와는 반대로 언어생성은 언어의 자체에 있다고 그의 논문 “인간언어구조의 상이성에 대하여”에서 주장하기도 한다, “추진하는 원인은 언어에 있다. 음을 분출하려는 소망, 의도, 필요 등이 그것이다”²⁷⁾ 이는 언어생성을 어느 개인의 독단적인 일이 절대 아니고 항상 어느 민족의 공동행위의 생산물로 이해하는 입장이고 언어가 출발하는 곳은 민족이다라는 견해이다.²⁸⁾

그러나 언어생성을 정확히 규정하자면 개인과 단체의 양면적인 생성이유가 언어에 있음을 알게 된다. 우선은 동시대인들과 접촉하려는 노력이 언어생성의 단체적 이유이고, 인간자신에게서 언어를 일깨우는 사고의 필요성이 개인적 이유이다. 사고란 언어를 통한 객관화를 거쳐서만 명확성을 얻기 때문이다.²⁹⁾ 그래서 언어발달은 “정신적 힘의 발전”(Entwicklung ihrer geistigen Kräfte)을 위한, 그리고 “세계관의 획득”(Gewinnung einer Weltanschauung)을 위한 내적 요구이다.³⁰⁾

언어의 원형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과 같이 존재하면서 언어를 어느 실체로 존재하는 언어유기체 내에서 발전시키도록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훔볼트는 언어의 전제조건과 언어의 필수적인 발현방식을 설명했다. 이런 원형을 중심으로 언어가 발현될 때는 통합의 단계를 거친다.

25) Humboldt III:435.

26) Humboldt III:197 참조

27) Humboldt III:196-197.

28) Humboldt III:269.

29) Humboldt III:138-139,438 참조

30) Humboldt III:390 참조

1.2. 통합 : 에네르게이아와 내적 언어형식

언어형성에서 진행되는 행위는 사고의 표현을 위해서 조음된 음이 수행 되도록 하는 정신의 영원히 반복되는 작업이고 하나의 통합적 행위이다. 에네르게이아는 어떤 조음된 음의 분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언어적 형성을 포함하고 세계를 파악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³¹⁾ 훔볼트에 의하면 언어성은 절대로 완성된 과정이 아니라 모든 말함에서 나타나야 한다. 매번 언어는 결손 없이 생성되는데 이는 단순한 컴퓨터의 커다란 기억용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능적 선형적으로 주어진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형성되어 알려진 어떤 단어의 발음도 하나의 에네르게이아적 과정이다. 음과 정신의 통합이 언어이다.

“감각의 행위는 정신의 내적 행위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연결에서부터 표상(Vorstellung)이 나오고 그것은 주관적인 힘에 대하여 객체가 되고 다시 그러한 새로이 인식된 것으로서 주체로 되돌아 온다. 이를 위해 언어는 필수적이다.”³²⁾

그래서 사고와 음의 통합이 일어난다. 다음과 같이 이러한 통합은 목표로 이해될 수 있다.

정신활동 : 의미행위 + 정신의 내적 행위 = 표상
 통합 : 표상이 언어로 되는 바로 전 단계 외적 언어형식, 내적 언어형식이 에네르게이아적으로 통합작용을 함.
 언어활동 : 표상 + 언어화, 조음 = 개념(날말)

31) 그래서 바이스게르버는 이것을 “세계의 날말화 과정”(Prozeß des Wortens der Welt)이라 했다. Weisgerber 1964:74-86 참조.

32) Humboldt III:428.

에네르게이아(Energie)는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이해된다.³³⁾ 그러나 에네르게이아는 단독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인데 다음 같은 자리에서 에르곤(Ergon)이라는 개념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언어는 작품이 아니고 행위(에네르게이아)이다. 언어의 진정한 규정은 그래서 단지 생성적인 규정이어야 한다. 언어는 즉 사고의 표현을 위해 조음된 음이 수행되도록 하는 정신의 영원히 반복하는 작업이다.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는 매번 일어나는 말함의 규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함의 전체를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³⁴⁾

훔볼트는 이 에네르게이아를 이해할 때 언어의 음성적인 면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언어형성의 사유적인 과정들과 말해진 단어의 연결에 중심을 두었다. 그래서 언어 형성에서 진행되는 행위는—사고의 표현을 위해 조음된 음이 수행되도록 하는 정신의 영원히 반복하는 작업—하나의 통합적인 행위이다. 각 단어는 통합의 결과이고 음과 내적 정신형태의 통합이다. 이 정신적 통합과정에서 에네르게이아는 한편으로는 언어 힘의 발달로 이해되고 다른 한편으로 사고를 형성하는 구성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³⁵⁾ 훔볼트에 의하면 언어성은 절대로 완성된 과정이 아니라 모든 말함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 말함에서 매번 필요한 단어가 결손 없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업적만은 아니다. 영혼이 본능적으로 단어들을 만드는 열쇠를 스스로 지니지 않는다면 어느 인간의 기억력도 그런 작업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³⁶⁾

매번 언어는 결손 없이 생성되는데 이는 단순한 컴퓨터의 커다란 기억용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능적 선형적으로 주어진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형성되어 알려진 어떤 단어의 발음도 하나의 에네르게이

33) Weisgerber 1962:15 이하 참조

34) Humboldt III:418.

35) Gipper 1992:30-33 참조

36) Humboldt III:480 그리고 11 도 참조

이적 과정이다. 어떤 언어공동체에서, 개인에서 혹은 일상적인 말함에서 언어 생성은 동일한 선형 철학적 원리에 귀결된다. 훔볼트는 이를 통합의 개념으로 기술한다.

낱말 형성에서 통합의 과정을 살펴어 보면 훔볼트의 개념 내적 언어형식을 만나게 된다. 이는 “카비어 서문”(『Einleitung zum Kawiwerk』)의 “내적언어형식과 음의 연결”(Verbindung des Lautes mit der inneren Sprachform)장에 언급되어 있는데³⁷⁾ 이 내적 언어형식은 훔볼트에 따르면 언어에게 하나의 내적이며 순수히 지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언어생성에서 정신적 행위가 돌아 다니는 길이다.³⁸⁾ 이는 어떤 언어가 개념적인 구성을 만드는 방식을 말하는데 바이스게르버(L. Weisgerber)는 이를 “세계의 언어적 변형 양식”³⁹⁾이라 했다. 이 내적 언어 형식은 에네르게이아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퍼(H. Gipper)가 이해한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원리에 더 가깝다.

음과 정신이 결합되는 과정인 통합은 여기서 풀어야 할 중요한 개념인데 훔볼트는 이것을 언어이전 단계에서 언어로의 전이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통합에서는, 즉 어떤 창조적인 행위에서는 내적인 사유형식과 음으로부터 제 삼의 어떤 것이 생성되는데, 이 제 삼의 어떤 것이 언어이다.⁴⁰⁾ 그러나 언어를 통해 생성된 것은 에르곤이 아니라 동적인 구성물이다. 사고와 음이 상황에 따라 상이한 물건이 되고 언제나 다시 새로이 기능하는 통합적 행위를 통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단계는 훔볼트에게 있어 “언어의 실질적 자료는 한편으로는 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적 인상과 독자적 정신활동의 통합인데, 이 정신활동은 언어의 도움을 받는 개념의 형성보다 선행 한다”⁴¹⁾라고 이해되었다. 이는 음과 정신의 통합을 생각해 한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감각의 행위는 정신의 내적 행위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연결에서부터 표상(Vorstellung)이 나오고 그것은 주관적

37) Humboldt III:463-475 참조.

38) Humboldt III:463 참조.

39) Weisgerber 1962:17.

40) Humboldt III:606 참조.

41) Humboldt III:422.

인 힘에 대하여 객체가 되고 다시 그러한 새로이 인식된 것으로서 주체로 되 돌아 온다. 이를 위해 언어는 필수적이다”⁴²⁾ 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고와 음의 통합이 일어나는데 우선 의미의 행위가 정신의 내적 행위와 결합하고 표상을 형성한다. 이것이 개념 설정에서 필수적인 독자적인 정신활동이다. 그러나 표상은 아직 개념이 아니다. 개념은 표상이 언어적으로 조음되면서 단어와 함께 생긴다. 표상은 우선 정확히 경계 지워진 개념이 아니고 조음에서 비로소 구체화된다. 그래서 언어음과 연결 없이는 표상은 개념이 될 수 없다.⁴³⁾ 그러나 이런 과정은 아직 바이스게르버가 말한 언어적 중간세계를 생각하고 설정한 과정은 아니다. 훔볼트의 이 과정에서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중간 세계라는 과정의 여과 없이 직접 만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음과 개념이 연결될 때 음이 통합적 행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보여지지 않았다. 실제적인 언어생성에서 모든 말함은 주어진 영역에 이미 존재하는 언어이다. 이는 순수하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바뀌어 질 뿐이라고 이해된다. 그래서 언어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통해 형성된 개념들이다.⁴⁴⁾ 이런 통합은 단어는 물론 문장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을 통해 그것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통합의 행위는 언어의 모든 곳에 나타난다. 우리는 그것을 문장 형성에서 가장 명확히 인식한다. 그리고 어형변화나 접미사, 접두사를 통하여 파생된 단어들에서, 개념과 음의 모든 연결에서 이는 인식될 수 있다.”⁴⁵⁾

훔볼트는 통합행위란 음성음운론, 조어론, 문장론에서도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언어전반적인 것이 통합으로 이해된다. 이

42) Humboldt III: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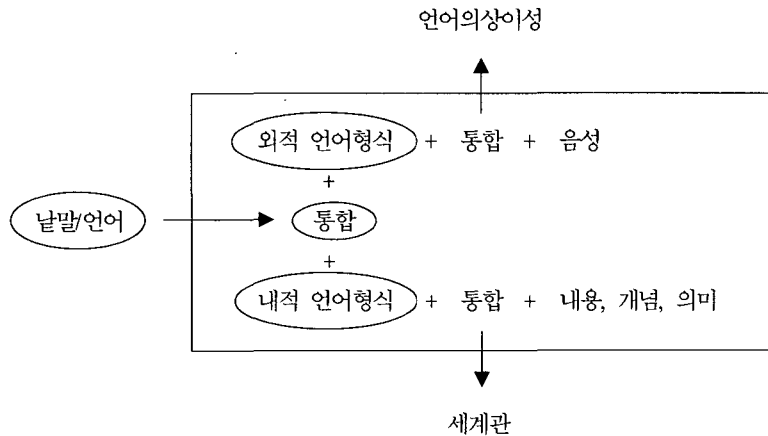
43)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단위들을 다음 같이 여러 방식으로 훔볼트는 여러 곳에서 나타내고 있다. “Lautform und innere Gestaltung”(III 473), “äußere und innere Sprachform”(III 475), “Laut und innere Gedankenform”(III 606).

44) Humboldt III:468 참조

45) Humboldt III:607.

통합개념은 에네르게이아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행위로서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의 개념적 형성은 물론 음과 사과의 통합적인 연결도 역시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언어는 조음된 음이 사고를 나타내도록 하는 정신의 영원히 반복되는 작업이다”⁴⁶⁾에서 그 음을 변형하는 능력이 바로 통합적인 과정이고 에네르게이아의 측면이며 세계를 개념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로써 모든 훔볼트의 언어개념들이 언어생성과 관계되는 것처럼 에르곤과 에네르게이아 개념 쌍에도 이 통합의 모티브가 있음으로 인해 언어생성질문과 관계가 있음이 명확해 졌다. 그러나 자세히 고찰하면 통합은 언제나 완성된 것이기에 연구되기가 쉽지 않다. 훔볼트가 비록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에서 언어는 선형 철학적으로 생성된다. 그의 업적은 언어생성의 비밀을 통합의 결과로 밝힌 것이고, 또 이런 통합의 전제조건을 언어원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페터 슈미터는 이러한 외적 언어형식과 내적 언어형식 그리고 통합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바 있다⁴⁷⁾:



46) Humboldt III:418.

47) Schmitter 1987:83 참조

2. 세계관 : 상이한 언어는 상이한 세계관을 만들어 낸다

민족과 언어는 훔볼트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여러 민족에 의해 말해지는 언어를 그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한다. 그는 “보고와 부록”(1811)에서 개별 언어를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별적인 표현”⁴⁸⁾ 말하고 있다. 언어의 구성특징은 바로 민족의 특징이다.⁴⁹⁾ 그는 민족을 하나의 개인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인간 언어구조의 상이성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은 어떤 특정한 언어를 통해서 특징화되어 있는 정신적인 형식이다.”⁵⁰⁾

민족적인 사상의 방식이 바로 언어적 세계관이다. 언어는 단순히 대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언어에 옮겨놓은 것이다.

언어는 인간과 인간을 중재하고 인간과 자연을 중재한다. 언어는 세계로 나가는 출구이다. 그러나 이 출구가 언어공동체마다 다르다. 그래서 언어의 상이성이 생기고 언어의 상이성으로 인해 민족마다 세계를 다르게 본다. 이것이 바로 훔볼트에 있어서 세계관이다. “언어의 상이성은 음성의 상이성이 아니고 세계관의 차이”로 생겨난다.⁵¹⁾

이러한 세계관이 어떻게 언어에 상재되었나를 그는 형식과 재료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세계관은 그에게서 형식이다. 형식은 언어이다. 그러나 형식은 문법이나 어휘일 뿐 아니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음성체계도 포함한다.⁵²⁾

언어는 그에게서 영원히 반복되는 정신의 작업이다. 언어는 재료와 형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다. 형식은 재료와 상대적인 어떤 심리적인 것이다. 재료는 형식을 통해서 실현된다. 재료는 어떤 규정 불가한 것이다. 형식은 어떤 것을 실현시키는 내적인 원리이고 이 형식이 언어에서 상이한 세계관을 만들어 낸다.

48) Humboldt III:296.

49) Humboldt V:15.

50) Humboldt VI:1, 125.

51) Humboldt IV:27.

52) Humboldt VII:49 참조.

훔볼트가 형식과 재료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실은 언어에서는 함께 나타나므로 구분이 불가하다. 슈나이더는 말하기를 언어에서 재료는 논리적으로만 추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³⁾ 재료는 훔볼트에서 선형적이고 단지 귀납적으로만 생각될 수 있다. 재료는 이미 만들어진 언어를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훔볼트에서 사람은 동물과 구분되는데 이는 분절이라는 능력을 통해서이다. 동물은 소리를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의미와 의의로 소리를 나누는 분절을 하지는 못한다. 언어의 첫 번째 본질이 바로 분절인데 이 분절에서 우리는 형식을 필요로 한다. 형식은 재료로 고착된다. 훔볼트는 언어적인 형식을 내적인 형식(심리적이고 지적이고 이념적인 처리방식)과 외적인 형식(음성적인 재료)으로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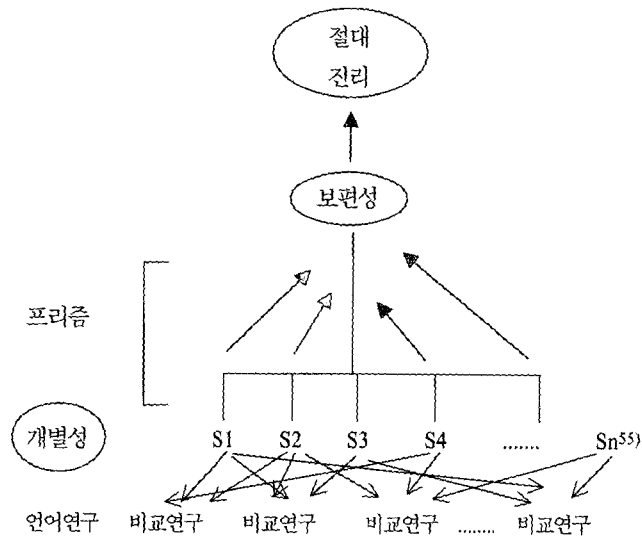
내적인 형식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객관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사고의 범주와 언어질료의 형식이 연결되는 모형이다. 이 내적인 형식이 민족의 정신을 나타낸다. 즉 내적인 언어형식은 사고의 조직과 언어의 조직을 중재한다. 훔볼트에서 언어는 통합적 과정인데 이 안에서 질료적 측면과 이념적인 측면이 통합을 통해서 형성된다.

훔볼트는 언어현상을 설명하면서 에르곤과 에네르게이아 개념을 자주 사용하는데 에르곤은 문법적인 것이고 가시적인 것이며 구상적인 것이지만 에네르게이아는 단순히 소슈르의 파롤도 아니고 말하기행위가 아니다. 언어는 음성을 사고로 표현하게 해 주는 정신적인 반복 작업이고 이 언어란 매번 말하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이런 말하기의 모든 것을 언어로 볼 수 있다.(VII:46) 그렇다면 언어는 죽은 에르곤이 아니고 매번 실행되고 창조되며 만들어져 가는 에네르게이아라고 할 수 있다.

훔볼트는 언어를 모국어와 긴밀하게 연결지어 이해한다. 즉 언어는 다양하게 실재하는 모국어일 뿐이다. 훔볼트에서 이런 언어의 다양성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언어란 보편성 안에서 개별성이 구현된 것

53) Schneider 1995:234 참조

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언어는 모국어로서의 언어이고 각각 개별화된 언어는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여러 가지 색을 띠는 것처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는 “언어의 상이성은 음성이나 기호의 상이성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의 상이성이다”⁵⁴⁾라고 했다. 보편성과 개별성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표로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언어1과 언어2가 서로 비교됨으로써 서로에게 나타나지 않는 상이한 측면을 고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운을 뜻하는 독일어 “Glück”이라는 낱말은 한국어에서 “축복”(기독교에서 신이 주는 복), “자비”(불교에서의 복), “행운”(일상적으로 우연히 만나는 복), “복”(한국의 토속적인 복), “운수”(토정바결에 의해 나타나는 좋은 징조) 등을 나타낸다. 이는 언어와 언어 사이에 있는 인간인식의 다양함을 맞보는 매우 긍정적인 측

54) Humboldt IV:27.

55) 언어가 통합되는 특성에 따라서 언어의 유형을 그는 네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굴절어, 첨가어, 고립어, 병합어. Humboldt III:653 참조.

면이다.

훔볼트에서 언어연구의 가장 좋은 방식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들
의 비교연구이다. 이 비교언어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개별성 사이에 있는 다
른 보편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성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보편적인 인지방식을 인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류 전체는 언어의
개별성을 통해서 보편성을 지향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진리에 도달
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될 것이다.

3. 번역관 : 번역은 낫설다

훔볼트는 그리스 고전들을 섭렵하면서 몇몇 작품들에 심취하여 번역하기로
결심하고 아에설로스의 “아가멤논”이라는 작품을 수년에 걸쳐 번역하였다.
그는 이 작품을 1816년에야 독일어로의 번역을 완성하여 “아에설로스의 아가
멤논, 훔볼트에 의해 운율적으로 번역됨”(Aeschylos Agamemnon metrisch
übersetzt von W. v. Humboldt)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이 번역에 대한 서
문에서 훔볼트는 자신의 구체적인 번역관을 설파하고 있다.

훔볼트의 앞에 소개된 언어관에 의하면 번역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곳에서
도 그는 언어의 기본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모든 언어형식은 상징이다. 언어형식은 사물 자체도 아니고 약속된 기호도 아
니다. 언어형식이란 그것이 나타내는 사물과 개념과 함께 그것이(언어형식) 생
성된 그리고 계속 생성되는 장소인 정신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신비스런 관계
속에 존재하는 소리들이고, 대상들을 현실과 동일하게 이상 안에 용해시켜 함
유하고 있으며, 어떤 경계가 생각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대상들을 바꾸고 규
정하고 나누고 연결할 수 있는 소리들이다.”⁵⁶⁾

그는 언어란 상징이면서 정신을 통해 사물과 개념이 혼합되어서 생기는 신

56) Humboldt VIII:131.

비스런 관계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언어의 초기호적인 성격을 읽을 수 있다.⁵⁷⁾ 그래서 정신을 배제하고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언어이고 생성방식이 현실이나 상황에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상이한 언어들을 서로 번역해내는 것은 훔볼트의 언어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훔볼트는 번역이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문학작품 번역이 가장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외국의 언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전하고 인류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형식을 알리고 언어의 의미와 표현능력의 확대를 위해 이러한 번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⁵⁸⁾

이러한 맥락에서 훔볼트에 의하면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민족의 정신이기에 원전의 성격에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원전에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번역이 낯섬(Fremdheit)의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번역은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 역자 주)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확실히 잘못된 경계선인가는 여기서 쉽게 확정할 수 있다. 낯섬(Fremdheit)이 아니라 낯선 것(das Fremde)이 느껴지는 한은 그 번역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낯섬(Fremdheit)이 나타나고 낯선 것(das Fremde)이 아마도 가리워진다면 번역자는 자신의 원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⁵⁹⁾

여기서 낯섬(Fremdheit)이란 말 그대로 낯선 어떤 것이다. 사전의 의미대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민감하고 어색한 그 무엇이다.⁶⁰⁾ 그러나 문맥상 이 “Fremdheit”는 매끄럽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낯말은 다음에 나오는 “das Fremde”(낯선 것)라는 낯말과 대조되고 있는데 훔볼트의 견해에 따르면 번역에서 이 “Fremdheit”가 나타나면 번역은 실패한 것이고 “das Fremde”가 나타나면 번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57) Schmitter 1987 참조.

58) Humboldt VIII: 130 참조.

59) Humboldt VIII:132.

60) Duden Wörterbuch 1983:434-435.

문맥상 “das Fremde”는 형용사 “fremd 낯선”(unbekannt 알려지지 않은, nicht vertraut 익숙하지 않은, ungewohnt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einem anderen gehörend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einen anderen betreffend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의 명사형으로서 알려지지 않고 익숙치 않으며,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해당하는 낯선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내용적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담은 전반적인 텍스트에서 풍겨 나오는 것을 “das Fremde”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번역은 번역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표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낯선 것”(das Fremde)으로 느껴져야 한다. 즉 번역에 외형적 낯선 느낌이 나타나지 않고 내용적인 낯설음이 느껴져야 번역자가 번역에서 원전에 충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번역자는 가끔 이 낯섬을 버리고, 완전히 독자를 생각한 용해된 말로 번역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 이를 훔볼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만일 이상한 표현이 두려워서 낯선 느낌을 피하려 한다면 다시 말해서 원전을 번역자가 자신의 언어로 쓴 것처럼 그렇게 하려 한다면 그 번역은 언어와 민족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⁶¹⁾

훔볼트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가멤논”을 단순함(Einfachheit)과 충실함(Treue)으로 번역을 했다. 즉 군더더기 없이 원전에 충실해서 번역하려 했다. 모든 텍스트를 번역할 때 그는 언제나 원전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독일어 같지 않은 표현은 멀리 했으며 애매한 표현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시도했다. 그에 의하면 번역이란 절대 애매한 낱말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문장구조를 통해 오해를 불러 일으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원전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은유 같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번역가는 텍스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당하지만 그 구조를 약간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⁶²⁾

원전에 최대한으로 충실하려고 한 것이 훔볼트의 번역태도이다. 그는 심지어 번역자들이 가끔 감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절충적인 방식을 중

61) Humboldt VIII:133.

62) Humboldt VIII: 134 참조

오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전적인 시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유가 번역가에게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한다.

“여기서만(즉 고전시가들을 번역하는 자는 자주 많은 자유로움 속에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자유로움 안에서; 역주) 번역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희생과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그는 보다 나은 후임자가 나타나기를 희망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번역은 주어진 시점에서 언어의 상태를 조사하고 규정하고 그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작업이고, 지속적인 작업으로서 언제나 새로이 반복되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⁶³⁾

번역자는 자신의 의사를 억누르고 희생해야 하며 표현에서 엄격해야 한다. 독자가 좀 더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견지에서만 약간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번역은 후임자에게 넘겨야 한다. 번역이란 영원히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훔볼트 번역관에서 특이한 것은 번역의 유연성이다. 번역은 일단 하나의 작품이지만 “지속적인 작품”(dauernde Werke)으로 이해한다. 즉 번역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이란 어떤 시점에서 언어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유기체적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번역의 고정된 개념에 반대되는 생각이다.⁶⁴⁾

훔볼트는 시를 번역할 때 그 안에 살아 있는 운율의 번역을 매우 중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어떤 외래어의 리듬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일반인들이 외국어의 리듬을 느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훔볼트는 “아가멤논” 번역에서 그러한 리듬을 충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대명사와 전치사들을 축약을 했고, 접속사들, 불변화사들 그리고 접미사들도 상황에 맞게 장단을 조절하였다. 그에 의하면 번역에서 강세가 잘못 주어지면 이 역시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강세나 장단까지도 고려하여 “아가멤논”을 번역했다.⁶⁵⁾

63) Humboldt VIII:137.

64) Humboldt VII: 46 참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훔볼트는 1796년에서 1804년까지 8년 동안의 긴 시간을 이 번역에 투자했다. 그럼에도 매년 그 작품을 교정하고 다듬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래서 훔볼트에서 번역이란 원전에 충실해야 하는 매우 정교한 작업이지만 새로운 창조이면서 지속적인 작업으로 이해될 것이다.

4. 사유 : 언어는 정신을 만들어낸다

훔볼트는 언어와 사고를 동일시하고 언어기능을 의사소통수단보다 사고의 수단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전시대의 철학자들이 언어를 단순히 동물적인 기원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언어는 이해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사고의 수단이다.”⁶⁶⁾

“언어는 사고와 감정을 대상으로서 표현한다.”⁶⁷⁾

“사람은 언어 내에서만 사고하고 느끼고 살아간다.”⁶⁸⁾

“언어는 사고와 감정의 진정한 거울이다.”⁶⁹⁾

“언어는 생각을 구성하는 기관이다.”⁷⁰⁾

만일 우리가 언어를 의사소통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원숭이도 언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의 언어가 여기서는 이해되는 것이다.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고를 단순히 수단을 찾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멍 안에 있는 구더기를 찍어 올리기 위해서 선인장가시를 사용하는 갈라파고스 섬의 다윈의 방울새도 사고하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65) Humboldt VIII: 146 참조

66) Humboldt III:76.

67) Humboldt III:77.

68) Humboldt III:77.

69) Humboldt III:253.

70) Humboldt III:191.

우리가 사고와 언어를 상관성 있는 것으로 생각하려면 사고는 훔볼트가 말하는 사고, 즉 보다 고차원적인 것을 사고로 생각해야 하고 언어는 일반적인 말하기와 구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고는 주로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동그라미를 보았을 때 남녀노소 신분 등에 따라서 그 동그라미를 다르게 보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보는 것은 지식에, 경험에, 언어소유상태에 의존적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사고대상은 상응하는 언어적 전제조건들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이런 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린이 사고발달을 고찰해 보면 낱말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만을 우선 인지함을 알게 된다. 낱말에 없는 대상들은 대개 관심을 두지 않는다.⁷¹⁾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사고한다는 말인데 훔볼트의 사고개념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사고는 물론 사고와 언어의 상관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훔볼트는 “말하기와 사고에 관하여”(1795/96)에서 사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1) 사고의 본질은 성찰에 있다. 즉 사고된 것을 사고하는 자와 구별하는 데 있다.
- 2) 사고하기 위해서 정신은 계속되는 행위 안에서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상상된 것을 어떤 단위로 파악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대상으로 자기자신에 대면시켜야 한다.
- 3) 그 정신이 이런 식으로 보다 많이 만들 수 있는 단위들을 정신은 다시 서로 비교하고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연결짓는다.
- 4) 정신의 본질은 그 자체의 과정 안에 단계들을 만드는 데서 생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정신의 행위의 어떤 분량에서부터 전체를 만드는 데서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은 서로 서로 개별화되고 모이기도 하고 사고하는 주체에게 객

71) 서양장기의 대가인 알레친은 언젠가 장기를 둘 때 어떤 말로 생각하는가를 질문 받은 적이 있는데 그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러시아어로, 장기를 둘 때는 독일어로, 국제적인 보통일에서는 영어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장기의 참고서는 모두 다 독일어로 되어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만일에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필요한 분야의 언어로 생각한다는 증거이다.

체로 대비되어 있기도 하다.

- 5) 어떤 사고도 우리 감성의 일반 형식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없다. 이 감성의 일반형식 안에서만 우리는 그 사고를 파악하고 고정시킬 수 있다.
- 6) 부분으로서 보다 큰 전체의 부분들에게 주체에게 객체로서 대면될 수 있기 위해서 사고의 어떤 분량이 통일되는 단위들의 감성적인 표시는 언어이다.
- 7) 그래서 언어는 성찰의 최초의 행위로 바로 시작된다.

훔볼트는 사고의 본질을 정신행위의 지속되는 과정으로 본다. 이 사고는 전체를 형성하고 이 형성된 것을 서로 대립시키고 동시에 스스로 자신에게 객체로서 대응시키기도 한다.

훔볼트는 이러한 사고의 언어와의 관계를 단순히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말하기와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주관적인 행위는 사고에서 객관이 된다. 왜냐하면 표상의 어떤 범주도 이미 있는 대상을 단순히 수용하는 명상으로서 고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의의 행위는 정신의 내적인 행동과 함께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로부터 표상이 표출되고 주관적인 힘에 대하여서는 객관이 되며, 새로이 인식된 그런 것으로서 그 주관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언어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 언어 내에서 정신적인 노력이 입술을 통해서 길을 틔으로써 동일한 자의 생산물이 다시 자신의 귀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즉 그 표상은 그런 것을 위해 주체에게서 취하지 않고 실제적인 객체로 전이된다. 언어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⁷²⁾

훔볼트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언어를 전해주는 “너”(Du)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인간이다. “너”는 “그”를 경계 짓고 “그”를 규정한다. “너”는 “그”에 반응하고 “그”를 “나”(Ich) 로 만든다. “나”는 대답하는 “너”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나”이다. 말하기를 통한 자기이해에서 자각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고려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72) Humboldt III:428-429.

스스로로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⁷³⁾ 그래서 인간의 사회성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작품도 아니다. 사회성이란 훔볼트에게 있어서 천성적으로 인간에게 해당하는 사회적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인간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에 존재해 있다. 거대한 고독 안에서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인 것처럼 그는 동시에 언제나 사회성에 놓인 사회성을 통해 존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 고유한 *사회지향성*은 역시 인간의 언어능력에 놓여 있다. 언어능력이 없는 인간은 비사회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는 언어가 그 처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훔볼트를 최초의 사회언어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화용론의 첫번째 기안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훔볼트는 “인간언어구조의 상이성에 대하여”에서 “언어는 연결된 말에만 존재한다. 문법과 사전은 죽은 해골과 같은 것이다”⁷⁴⁾라 했다. 여기서 그는 이 말을 통하여 언어의 화용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문법이나 사전이 언어를 보존한다거나 설명한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에게서 문자로서 보존된 언어는 미이라와 같은 보존일 뿐 언어의 실체는 아니고 언제나 그것은 실제로 실현이 되어야만 언어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언어는 지속적인 것이고 매순간마다 변하는 것이다”⁷⁵⁾. 이는 언어의 동적인 측면과 대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서 ‘Rede’(담화)는 이러한 언어의 기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쌍수에 대하여”(Über den Dualis, 1827)라는 논문에서 주로 언어에서 대화의 중요함과 이해를 돕는 언어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래서 훔볼트에 있어서 언어는 사회성이 중요하고 ‘나’(Ich)와 ‘너’(Du)라는 인칭대명사가 언어원시원형으로 작용을 하며 이에 따르는 “이원성”(Zweiheit)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73) 이런 현상을 Ch.Stetter는 훔볼트의 언어철학에서 화용적인 모티브라고 간주한다.

Ch. Stetter “Über Denken und Sprechen” 1989:27 참조

74) Humboldt III:186.

75) Humboldt III:418.

“특별히 언어를 위해 결정적인 것은 언어 안에 이원성이 어느 다른 곳보다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모든 말은 상호대화에 기인한다. 그 상호대화에서 말하는 자는 대화상대자들을 언제나 단위로서 마주해 설정한다.”⁷⁶⁾

이런 기본적인 언어의 이원성을 서술하고 또 동일한 논문에서 훔볼트는 언어의 본질인 이원성과 관련하여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 언급 한다.

“언어의 근본적인 본질에는 바뀔 수 없는 이원성이 있다. 그리고 그 말함의 가능성 자체도 말을 거는 것과 그 대답을 통해 좌우된다. 근본적으로 사고란 사회적인 존재로 가는 경향에서 유도된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육체적인 통각 관계와는 무관하게 그의 단순한 사고를 위해 나에 해당하는 너를 동경한다. 개념은 어느 낯선 사고력에서 나온 반사를 통해서 비로소 그것의 규정과 확신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개념은 움직이는 많은 표상에서부터 분리되면서, 그리고 주체에 대하여 객체로 되면서 그 개념은 생성된다. 그러나 이 분리가 주관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신에게 상상되고 생각되어지는 본질이 단지 다른 사람에게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할 때 그 객관성은 더 완벽한 것처럼 보인다.”⁷⁷⁾

“단어가 개인에게서만 만들어졌다면, 그 단어는 단지 어떤 거짓객체에 비유된다. 언어는 개인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그 언어는 한 새로운 시도가 어떤 행해진 시도에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⁷⁸⁾

이와는 약간 다르게 “카비어 서문”에서 훔볼트는 객체에 대한 주체를 역으로 강조 한다.

“언어는 주관적으로 작용하고 주관에 종속적일 때 한에서 바로 객관적으로 작용하고 자립적이 된다. 언어는 문자가 아닌 어떤 체류하는 장소를 갖기 때문이다. 언어의 죽은 부분은 언제나 사고에서 새로이 생산되어야 하고 말이나 이해

76) Humboldt III:137.

77) Humboldt III:138-139.

78) Humboldt III:139.

에서 활성화되고 이어서 주체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사고를 객체로 만드는 것은 이런 생산의 행위에 있다.”⁷⁹⁾

이는 주관과 객관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주체와 객체의 보완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고는 한번은 주체가 되고(언어를 통해) 또 언어를 통해 객체로 가서 다시 반사되며, 결국은 객체적 주체로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역할을 처리하는 것이 언어이다.

이처럼 훔볼트는 여러 곳에서 언어의 실용성을 강조했고 언어의 사회성과 객관성을 언어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래서 그에게서 언어는 우선 “무한성과 유한성을 연결해 주는 중재자이고 어느 개인과 다른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재자”⁸⁰⁾이다.

이런 그의 근본적인 궁극목표는 그러나 언어의 사회성이나 화용성을 강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함에서 사회적인 혹은 화용적인 언어형성의 측면을 통한 하나의 지적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비록 훔볼트가 언어의 많은 사회성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에게서 언어는 “완전히 단순한 이해의 수단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세계상과 정신의 모사체이다. 그 사회성은 언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조수단이지만, 그 사회성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언어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는 개개인들이 인류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한은 그 중착점을 개인에게서 찾는다”⁸¹⁾ 이는 바로 조음된 음을 가지고 사유를 표현하는 지적 행위가 결국은 개인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래서 이 언어의 말함을 통해 사유하고, 사유의 강화를 위해 언어를 말하며, 그것이 들려지는 너와 말해지는 장소인 언어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어느 사회에서 말해진다는 것은 언어의 상이성을 자아내고 여러 상이한 민족(Nation)을 결과적으로 만들게 된다.

79) Humboldt III:438.

80) Humboldt Berlin III:296.

81) Humboldt III:135.

“인간은 더욱이 사고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정신적인 친족성의 원을 그리고 자기처럼 말하는 자들을 다르게 말하는 자들로부터 구별한다. 인류를 낳은 사람과 고향사람으로 나누는 이러한 구별은 모든 원래 사회적인 연결의 기본원리이다.”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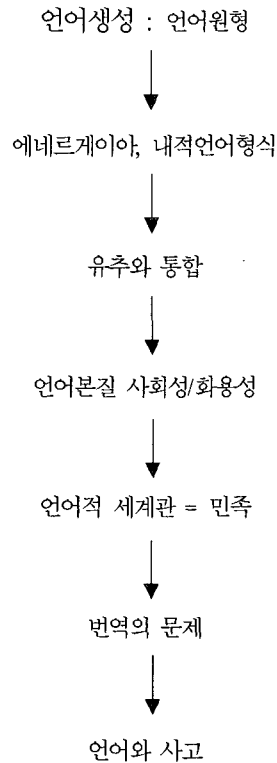
이런 맥락에서 훔볼트에게 있어서 인간(개인), 사회(언어공동체) 그리고 사유(思惟)는 구어체언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인류가 정신을 형성해 내는 수단은 언어이고, 사회는 바로 언어가 발전되는 장소이며, 각 개인은 이 모든 요소들에 의해 지배되고 이 요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요소 중 훔볼트는 개인(인간)의 역할을 가장 중시했다. 그래서 언어의 실용성은 훔볼트에게서 결국 개인의 사유를 위한 것이었다.⁸³⁾ 언어공동체와 민족이 필요한 것은 훔볼트의 언어관에 의하면 결국은 개인의 정신활동을 위해서이다.

82) Humboldt III:138.

83) 언어와 사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대화는 물론 텍스트에도 훔볼트는 관심을 갖는다. 그는 언어연구를 언어구조연구(Sprachbau)와 언어양성연구(Ausbildung der Sprache)로 구별했는데 이중 두번째 것을 언어학에서 실용성연구라 볼 수 있다. 언어의 목적은 말함이다. 이 말함이 쓰여진 것이 텍스트인데 이를 연구하였던 과거의 분과는 문헌학(Philologie)이었다. 이 문헌학의 한 방식을 훔볼트는 말함의 한 방식인 텍스트를 연구하기 위해 언어학에 원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텍스트가 사유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개개인과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해보고자 했다.(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과 개개인에 대한 언어구조의 영향, 개개 언어에 대한 언어의 힘, 언어구조에 대한 인간의 영향 등등) 이런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훔볼트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규명하려 했다. 그 후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독일과 이태리에서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진행되는데 Vossler, Croce, Dilthey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살아있는 말함과 작가들의 언어사용(텍스트형태로)에서 언어를 연구했다.

5. 요약

훔볼트의 언어관을 테마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훔볼트에서 언어문제는 먼저 생성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의 생성관을 이해할 때 언어의 본질이 이해되고 그리고 언어의 생성과정을 통하여 문법과 하드웨어적인 언어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어의 사용처인 사회와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민족의 필요성과 언어의 화용성이 동시에 풀리게 된다. 각기 다른 민족의 언어는 다른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그 세계관이 즉 민족이다. 이렇게 언어는 상이한 환경과 문화에서 생성 발전됨으로 각

각 다른 현상은 음의 현상이나 외관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관의 상이성에서 기인하므로 절대 서로 서로 완전한 번역을 불가능하다. 이런 언어는 결국에는 민족의 언어를 통해 개인으로 넘어가고 개인은 각각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훔볼트가 말하는 개별성과 보편성의 문제에서 민족마다의 차이점을 그는 개별성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실은 각 개인의 개별성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훔볼트의 언어학에 관한 저작

- 1795-96 사고와 말하기에 대하여 Über Denken und Sprechen.
- 1820 언어발달의 여러 시기와 관련지은 비교언어연구에 대하여 Über das vergleichende Sprachstudium in Beziehung auf die verschiedenen Epochen der Sprachentwicklung.
- 1822 문법적 형식의 생성과 그 문법적 형식이 관념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Über das Entstehen der grammatischen Formen und ihren Einfluss auf die Ideenentwicklung.
- 1822 언어의 민족적 특성에 대하여 Über den Nationalcharakter der Sprachen.
- 1824 문자와 언어구조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Über die Buchsabenschrift und ihren Zusammenhang mit dem Sprachbau.
- 1827 쌍수에 관하여 Über den Dualis.
- 1827-29 인간언어구조의 상이성에 대하여 Über die Verschiedenheiten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 1830-35 인간언어구조의 상이성과 인간언어구조가 인류정신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ss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인용문헌

- Duden Deutsches Universal Wörterbuch : 1983, Hg. G. Drosdowski. Mannheim/Wien/Zürich. : Dudenverlag.
- Gipper, H.: 1992. W.v.Humboldts Bedeutung für Theorie und Praxis moderner Sprachforschung. Nodus: Münster.
- Humboldt, W.v.:
- 1904ff. Wilhelm von Humboldts Werke. Bd. 1-17. Hg. Albert Leitzmann. Berlin. Hg. von d. Königli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1801-02 Fragmenten der Monographie über die Basken In: Bd.7.
 - 1811 Berichtigungen und Zusätzen. In: Bd.3.
 - 1820 Über das vergleichende Studium. In: Bd.4.
 - 1821 Versuch einer Analyse der Mexicanischen Sprache. In: Bd.3.
 - 1824-6 Grundzüge des allgemeinen Sprachtypus. In: Bd.5.
 - 1827 Über den Dualis. In: Bd.6.
 - 1827-9 Über die Verschiedenheiten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In: Bd.6.
 - 1827-9 Von dem grammatischen Baue der Sprachen. In: Bd.3.
 - 1830-5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ß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Kawi Einleitung). In: Bd.7.
- Humboldt, W.v.: 1988 Werke in fünf Bände. Hg. von Andreas Flitner und Klaus Giel. Darmstadt: Wiss. Buchges.
- Schmitter, P.: 1987, Das sprachliche Zeichen. Münster : Nodus.
- Schneider, F.: 1995. Der Typus der Sprache. Nodus: Münster.
- Stetter, Christian : 1989 Humboldt und das Problem der Schrift. In: Lia Formigari und Tullio De Mauro (Hrsg.): Leibniz, humboldt, and the Origins of Comparative Linguistics. Amsterdam/Philadelphia: Benjamins.
- Weisgeber, L.: 1962.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Schwann: Düsseldorf.
- Weisgerber,L.: 1964. Das Menschheitsgesetz der Sprache. Quelle & Meyer: Heidelberg.

[Abstract]

W. v. Humboldt's Thought

Cheung-O An
(Korea Universit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Humboldt's thought for language. In Korea, only two themes, "worldview" and "nation", problem of "energeia" and "ergon", was mostly researched. But we must research all together his thoughts, in order to understand his *complete* thoughts. His thoughts consist six themes :

1. relation between thought and language.
2. problem of language-generation.
3. problem of translation.
4. substance of language.
5. *worldview* and *nation*.
6. *energeia* and *ergon*.

From this five themes, we can understand, what his origin thought is. Therefore, we explained sequentially five themes in our paper. The theme 1, 5 and 6 are often interpreted between the scholars in Korea. But the theme 2 and 3 are not yet known. Therefore, we tried to explain it in this paper, what the problem of language-generation and the problem of translation are.

접 수 일 : 2004년 4월 26일
심사기간 : 2004년 5월 1일~20일
재 심 사 : 2004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6월 5일(편집위원회의)